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사 이미지 및 자아존중감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서영숙, 정추영*

대구보건대학교 간호학과

The Effects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Nursing Image and Self-Esteem on
Vocational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Young-sook Seo, Chu-young Jeong*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Daegu-Health

(Received April 02, 2020; Revised April 18, 2020; Accepted May 10, 2020)

Abstract

Purpose: This study is a descriptive study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nursing image and self-esteem on vocational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Method: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00 nursing students majoring nursing science in D college, D city and seniors who took the clinical practice course. The data was analyzed by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stepwise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WIN 22.0. program.

Results: There was a statistically strong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nursing image and self-esteem($r=.242, p=.001$), vocational identity($r=.196, p=.009$),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r=.542, p<.001$). The factors influencing vocational identity were self-esteem($t=7.193, p<.001$), aptitude and nursing belief of motivation for choosing nursing($t=5.472, p<.001$), grade($t=-3.249, p=.001$), professions of motivation for choosing nursing($t=2.694, p=.008$),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major($t=2.295, p=.023$). The explanatory power of these models was 38.2%.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o improve the vocational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in college, it is needed to develop nursing education program that strengthen self-esteem, aptitude and nursing belief, professions,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major. Also it is needed a study on verifying application effects.

Key Words : Academic performanc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ism, Students, Personal relations.

*Corresponding author : jcy0902@dhc.ac.kr

1. 서론

진로는 인생을 살며 경험하는 다양한 상황을 통해 변화하는 지속적인 과정의 과업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결정을 위해 끊임없이 여러 대안에 대해 탐색한다. 특히, 대학생 시기는 적성과 흥미 등으로 고려한 직업적 진로를 탐색함으로써 자아실현에 대한 가치와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한편, 한국의 다수 대학생은 입시 위주의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인해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인 자아정체성 특히 진로정체성에 대해 깊이 있는 탐색과 성찰을 할 기회가 부족하다¹⁾. 따라서 최근의 대학생들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한 진로문제를 충분한 탐색 없이 성적과 취업 또는 부모의 의사에 따라 대학 및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학생들이 진로결정 과정에서 혼란과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있다²⁾.

진로정체감은 직업과 관련된 자아정체감의 일종으로 자신의 목표, 적성, 흥미, 재능 등에 대해 개인이 가진 뚜렷하고 일관된 개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호대학생이 간호사를 직업으로 선택하는데 확신한다면 명확한 진로정체감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³⁾.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이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과 관련된 진로준비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⁴⁾, 간호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간호대학생들은 전공을 선택하는 것과 동시에 진로가 결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재학 기간 중 진로결정을 위한 탐색과 상담이 타 전공 학생들이 비해 낮은 편이다. 진로정체감은 취업 후 간호직무수행과 임상현장 적응에 영향을 미치며⁴⁾, 직무만족에도 영향을 미친다⁵⁾.

간호전문직에 대한 명확한 진로정체감이 정립되지 않는다면, 특히 신규간호사의 경우 업무수행과 현장적응 및 직무만족도가 낮을 수 있다⁵⁾. 신규간호사의 이직률 감소를 위한 방안으로써 현장 적응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간호전문직에 대한 정체성 정립이 중요하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정립에 영향을 주는 요

인에 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과 간호사 이미지⁴⁾, 임상실습만족도⁵⁾, 임상수행능력⁶⁾, 임상실습 감정노동⁷⁾, 사회적지지⁸⁾, 전공만족도⁹⁾, 직업기초능력¹⁰⁾, 임상실습 스트레스¹¹⁾ 및 대처방식 등¹²⁾이 있다.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고⁴⁾⁵⁾⁷⁾,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고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⁹⁾. 특히 자아존중감은 진로정체감에 가장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보고되었다⁴⁾¹³⁾.

한편,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수준에 자아존중감, 간호사 이미지 및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한 연구한 결과는 있으나⁴⁾⁶⁾⁸⁾ 이들 변수와 진로정체감을 연속성에 두고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정체감 정도를 파악하고, 진로정체감에 대한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사 이미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파악하며, 진로정체감에 대한 영향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진로 탐색 및 결정에 도움을 주고, 간호전문직에 대한 명확한 진로정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지도 및 교육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사 이미지, 자아존중감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사 이미지, 자아존중감 및 진로정체감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사 이미지, 자아존중감 및 진로정체감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사 이미지, 자아존중감 및 진로정체감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이를 변수로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D시에 소재한 일개 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로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200명을 편의 추출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크기는 G*power 3.1 program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효과크기를 .15로 산출한 결과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 표본크기는 169명이 산출되어 10%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였으며, 최소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9년 5월 7일부터 5월 9일까지 시행되었다. 연구자는 연구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설문지를 작성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였다. 연구자는 사전에 조정된 일정에 따라 강의실에서 대상자를 직접 만나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연구 진행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연구동의서 및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자료 수집은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시행되었으며, 설문지 작성에는 약 10분~15분이 소요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각각의 대상자들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설문내용이 불충분한 설문지 22부를 제외한 178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임상실습만족도

본 연구의 임상실습만족도 측정도구는 Jo와 Kang¹⁴⁾이 개발하여 Lee¹⁵⁾이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31문항에 실습교과(3문항), 실습내용(6문항), 실습지도(9문항), 실습환경(7문항), 실습시간(3문항), 실습평가(3문항) 6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되며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점, ‘매우 그렇다’=5점)로 부정적 문항은 역산 처리하여 총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¹⁵⁾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9$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0.89$ 이었다.

2.3.2. 간호사 이미지

본 연구의 간호사 이미지 도구는 Song¹⁶⁾이 만들고, Lee¹⁷⁾와 Yang¹⁸⁾이 개발한 도구를 Kim¹⁹⁾이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40문항에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 이미지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Kim¹⁹⁾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95$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0.96$ 이었다.

2.3.3. 자아존중감

본 연구의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는 Rosenberg²⁰⁾가 개발한 Rosenberg Self-Esteem Scale을 Jeon²¹⁾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에 4점 Likert 척도(‘거의 그렇지 않다’=1점, ‘항상 그렇다’=4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2$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0.82$ 이었다.

2.3.4. 진로정체감

본 연구의 진로정체감 측정도구는 Holland, Daiger와 Power²²⁾이 개발한 진로상황검사를 Kim²³⁾이 번안하고, Kwon²⁴⁾이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14문항으로 4점 Likert 척도(‘매우 그렇다’=1점, ‘전혀 그렇지 않다’=4점)로 점수는 역환산하여 계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은 것임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²³⁾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0.89$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0.88$ 이었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

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통해 실수와 백분율을 이용하였고,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사이미지, 자아존중감 및 진로정체감의 서술적 통계는 평균·표준편차로 산출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을 확인하기 위하여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를 사용하였다.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으며,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사 이미지, 자아존중감 및 진로정체감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이에 따른 진로정체감 차이는 성별은 여자가 139명(78%), 학년은 3학년이 96명(53.9%)으로 대상자의 연령이 20-22세가 105명(59%)으로 대부분 차지했다. 학업성적은 3.6~3.9점이 68명(38.9%)으로 가장 많았다. 간호학과 선택 동기는 '졸업 후 취업률이 높아서'가 75명(42.1%)으로 가장 많았다. 간호학과 전공 만족도는 '만족'이 87명(46.5%)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차이는 학년($t=2.812, p=0.006$), 전공만족도($t=8.470, p<0.001$), 건강상태($t=4.086, p=0.008$), 진학동기($t=8.421, p<0.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성별, 연령, 학업 성적, 대인관계, 졸업 후 진로, 경제수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3.2. 대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사 이미지, 자아존중감 및 진로정체감 정도

임상실습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46(± 0.55)점이었으며, 하위영역별 점수에서는 실습교과 3.72(± 0.67)점, 실습내용 3.54(± 0.55)점, 실습환경

3.53(± 0.63)점, 실습평가 3.43(± 0.77)점, 실습시간 3.41(± 0.84)점, 실습지도 3.29(± 0.69)점 순이었다. 간호사 이미지는 5점 만점에 3.95(± 0.56)점, 자아존중감은 5점 만점에 3.03(± 0.45)점, 진로정체감은 4점 만점에 2.49(± 0.47)점이었다(Table 2).

3.3.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사 이미지, 자아존중감 및 진로정체감의 상관관계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한 결과, 간호사 이미지와 자아존중감($r=0.242, p=0.001$), 진로정체감($r=0.196, p=0.009$)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상실습만족도($r=0.542, p<0.001$)와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만족도는 자아존중감($r=0.123, p=0.103$)과 진로정체감($r=0.021, p=0.782$)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진로정체감($r=0.451, p<0.001$)은 비교적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3.4.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확인한 결과, 잔차의 분포는 정규성을 만족하였고, 독립변수 간의 다중 공선성을 검정하였을 때, 공차가 .96에서 .99이고, 분산팽창계수가 1.01에서 1.06으로 나타나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22.858, p<0.001$),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존중감($\beta=0.443, p<0.001$), 진학동기의 적성과 흥미($\beta=0.333, p<0.001$), 학년($\beta=-0.194, p=0.001$), 진학동기의 전문성($\beta=0.162, p=0.008$), 전공만족도($\beta=0.138, p=0.023$)이었으며, 진로정체감에 대한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38.2%였다. 그중에서 자아존중감이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이었다(Table 4).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 of vocational identity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78)

Variable	Categories	N(%)	Vocational Identity		
			M(±SD)	t or F	p
Gender	Male	39(21.9)	2.49(±0.50)	0.004	0.997
	Female	139(78.0)	2.49(±0.46)		
Grade	3rd	96(53.9)	2.58(±0.41)	2.812	0.006
	4nd	82(46.0)	2.37(±0.51)		
Age	20-22	105(59.0)	2.44(±0.46)	1.112	0.331
	23-25	45(25.3)	2.53(±0.47)		
	≥26	28(15.7)	2.56(±0.49)		
Academic grade	4.0-4.5	29(16.6)	2.48(±0.42)	0.429	0.732
	3.6-3.9	68(38.9)	2.50(±0.49)		
	3.0-3.5	65(37.1)	2.45(±0.45)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major	≤2.9	13(7.4)	2.56(±0.45)	8.470	<0.001 a,b<d<c
	Bada	15(8.4)	2.09(±0.39)		
	Moderateb	64(36.0)	2.38(±0.43)		
	Goodc	87(46.5)	2.59(±0.42)		
Health Condition	Very goodd	12(6.7)	2.78(±0.67)	4.086	0.008
	Bad	10(5.6)	2.03(±0.35)		
	Moderate	62(34.8)	2.44(±0.34)		
	Good	72(40.4)	2.55(±0.50)		
Interpersonal relationship	Very good	34(19.1)	2.53(±0.56)	1.269	0.286
	Bad	2(1.1)	2.21(±0.40)		
	Moderate	60(33.7)	2.41(±0.39)		
	Good	86(48.3)	2.54(±0.47)		
Motivation for choosing nursing	High school grade	8(4.5)	2.27(±0.32)	8.421	<0.001 a,b<c
	Recommedation of othersa	27(15.2)	2.21(±0.35)		
	Employment/ job possibilityb	75(42.1)	2.38(±0.45)		
	Aptitude/ nursing beliefc	47(26.4)	2.77(±0.39)		
	Professions	17(9.6)	2.62(±0.53)		
After graduation	Others	4(2.2)	2.79(±0.53)	0.862	0.508
	Hospital	155(87.0)	2.50(±0.46)		
	Graduate school	1(0.6)	2.71(.)		
	Nurse teacher/ school nurse	2(1.1)	2.25(±1.06)		
	Occupational health nurse	6(3.4)	2.43(±0.52)		
Economic Situation	Public official	11(6.2)	2.38(±0.50)	2.048	0.090
	Others	3(1.7)	2.04(±0.08)		
	Very high	17(9.6)	2.76(±0.61)		
Economic Situation	High	43(24.2)	2.44(±0.43)	2.048	0.090
	Moderate	93(52.2)	2.46(±0.45)		
	Low	24(13.5)	2.40(±0.45)		
	Very low	1(0.6)	2.86(.)		

Table 2. Degree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nursing image, self-esteem and vocational identity

(N=178)		
Variable	Range	M±SD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1.94~5.00	3.46(±0.55)
Clinical practice subject	1.33~5.00	3.72(±0.67)
Clinical practice contents	2.33~5.00	3.54(±0.55)
Clinical practice guidance	1.44~5.00	3.29(±0.69)
Clinical practice circumstance	1.57~5.00	3.53(±0.63)
Clinical practice time	1.00~5.00	3.41(±0.84)
Clinical practice evaluation	1.00~5.00	3.43(±0.77)
Nurse's Image	2.40~4.23	3.95(±0.56)
Self Esteem	1.80~4.50	3.03(±0.45)
Career Identity	1.00~3.86	2.49(±0.47)

Table 3. Correlation among nursing imag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self-esteem and vocational identity

(N=178)			
Variable	Nursing imag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self-esteem
	r(p)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0.542(<0.001)		
Self-esteem	0.242(0.001)	0.123(0.103)	
Vocational identity	0.196(0.009)	0.021(0.782)	0.451(<0.001)

Table 4. Factors affecting on vocational identity (N=178)

Variable	B	SE	β	t	p
(Constant)	1.055	0.189		5.544	0.001
Self Esteem	0.442	0.062	0.428	7.193	0.001
Aptitude/nursing belief	0.353	0.065	0.333	5.472	0.001
Grade	-0.182	0.056	-0.194	-3.249	0.001
professions	0.259	0.096	0.162	2.694	0.008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major	0.129	0.056	0.138	2.295	0.023

R²=0.399, Adj. R²=0.382, F=22.858, p<0.001

4. 고찰

본 연구는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사 이미지, 자아존중감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지도와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 정도를 파악한 결과, 학년, 전공만족도, 진학동기 중 적성과 흥미, 전문성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은 자신의 진로 및 직업이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지만, 진로에 대한 자기 확신 정도는 졸업 후 임상에서의 태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3학년에서 진로정체감의 평균이 2.58(±0.41)으로 4학년 2.37(±0.51)보다 높았으며(t=2.812, p<0.05),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진로정체감 평균점수(F=8.470, p<0.001)도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Kim²⁾의 연구에서 진로정체감의 평균이 학년이 높아질수록 점점 낮아진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4학년 임상실습 기간 중 간호사들의 업무강도에 대한 간접적 경험과 취업을 위한 사전준비 및 면접의 과정을 겪으며 진로선택에 대한 성찰을 통해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한편,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학년에 따른 진로정체감에 대한 차이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한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전공만족도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결과는 전공만족도가 진로성숙태도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한 Kim²⁾과 Jung et al²⁵⁾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맥락이다. Lee et al²⁶⁾의 연구에서 전공만족도는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주어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우 진로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갖게 되며 대학에서의 전공과 전공수업에 높은 만족도는 직장에서의 업무 수행 및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전공만족도는 전공 선택으로 국한된 것이 아닌 진로결정 수준에 중요하게 작용하여 이후 학업성취와 진로결정수준 향상 등과 관련된 대학생활 만족에도 영향을 미친다²⁶⁾.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전공만족도와 진로정체감의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였을 때

자신의 전공 및 진로선택에 대한 확신과 만족의 정도를 확인하여 이를 향상할 수 있도록 돕는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진학동기에서는 본인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였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진로정체감이 2.77(± 0.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p < 0.001$). 이러한 결과는 Jung et al²⁵⁾의 연구에서 진학동기 중 적성과 흥미로 간호학을 선택한 학생이 진로정체감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전공 및 직업선택에 있어 충분한 자기탐색을 통한 자기 확신과 동기가 명확할수록 진로정체감이 높게 나타난 Cho와 Lee⁴⁾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한 맥락이다. 따라서 대학은 신입생 선발에 있어 전공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전형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후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공 관련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 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은 5점 만점에 3.03점으로 Yang과 Lee⁶⁾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5점 만점에 3.05점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진로정체감 정도는 4점 만점에 2.49점(± 0.47)으로 간호대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한 Cho와 Lee⁴⁾의 연구 4점 만점에 2.67점(± 0.41), 간호대학생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Yang과 Lee⁶⁾의 연구에서 2.69점(± 0.55), Kim²⁾의 연구에서 2.50점(± 0.49), Jung et al²⁵⁾의 연구결과 2.65점(± 0.44)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학제와 대상 학년에 따른 차이로 직접적인 비교에 제한이 있으므로 추후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과 진로정체감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beta = .443, p < 0.001$) 자아존중감이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Nam과 Lee⁷⁾의 연구에서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직업정체감의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Cho와 Lee⁴⁾의 연구에서 연령과 대학입학 만족도 변인을 통제한 후 자아존중감과 진로정체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적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에서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이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에게 매우 중요한 요인을 알 수 있다. 한편, 간호사 이미지와 진로정체감은 약한 정적 상관관계($r = 0.196, p = 0.009$)로, Ha⁹⁾의 연구 결과($r = 0.382, p < 0.001$)보다 낮게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는 전문직 자아개념을 증가시키며, 진로정체감 확립이 대학생활적응도를 높여 진로발달과업을 해결하는데 영향을 미치므로 간호사 이미지와 진로정체감에 대한 추후연구가 필요할 것이다⁹⁾. 임상실습만족도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진로정체감과 상관계수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Kwon과 Choi⁵⁾의 연구에서는 임상실습만족도가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진로정체감을 파악하기 위한 간접적인 척도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임상실습만족도와 진로정체감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요인들의 진로정체감에 대한 설명력은 38.2%였으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Cho와 Lee⁴⁾, Yang과 Lee⁶⁾, Lee와 Cha⁸⁾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여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간호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은 진로교육을 통한 자기이해를 촉진시키는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내어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진학동기의 적성과 흥미, 학년, 진학동기의 전문성, 전공만족도가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²⁴⁾. 즉 개인의 자신에 대한 높은 가치 평가는 진로정체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자아존중감, 진학동기의 적성과 흥미, 학년, 진학동기의 전문성, 전공만족도가 진로정체감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을 높이기 위해 자아존중감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년별로 진로정체감을 향상할 방안과 간호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제공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사 이미지,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 정도를 파악하고 일반적 특성과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사 이미지, 자아존중감이 간호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실시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 적성과 흥미, 학년, 전문성, 전공만족도 등으로 진로정체감을 38.2% 설명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적성과 흥미가 높을수록, 학년이 낮을수록, 전문성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유의하게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는 D시 소재의 D대학교 간호대학생 3, 4학년에 국한되어 조사한 것이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탐색하고 추후 학년과 학교를 확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전문성, 전공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1. Jung JS. The relationships among career identity statuses, parental attachment and psychological separation of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2003.
2. Kim NK. Pattern of career choice and career identity of students in nurs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2012.
3. Moon IO, Lee GW. The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and career search efficacy on career search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0;16(1):83-91
4. Cho H, Lee GY. Self esteem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Public Health Nursing. 2006; 20(2):163-173.
5. Kwon KN, Choi EH. Factors affecting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2010;24(1):19-28.
6. Yang YO, Lee SO. The relations of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identity on th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2; 14(2):979-989.
7. Nam MH, Lee MR. The effect of emotional labor of clinical practice, self-esteem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n professional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6;22(4):527-536.
8. Lee SH, Cha EJ. Effects of verbal abuse, sexual violence, depression, and self-esteem on career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during clinical training.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7;17(4):550-560.
9. Ha JY. Image of nurses and career identity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Ewha Woman University. 2012;24(2):23-30.
10. Choi EH.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identity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9; 15(1):15-21.
11. Kim JH, Jang SN, Ji HJ, Jung GJ, Seo YJ, Kim JH, et al. The effect of parental social support on the transition to college life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undergraduat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5;16(9):6027-6035.
12. Yun YM, Sung KS, Kim EJ. The effects of core competencies on adaptation of the major,

- career identity and career search abilit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home care nursing*. 2015;22(1):98-108.
13. Carolie J. The caring efficacy scale: Nurses' self-reports of caring in practice settings. *Advanced Practice Nursing Quarterly*. 1997;3(1):53-59.
 14. Jo KJ, Kang HS. Study on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1984;14(2):63-74.
 15. Lee SH, Kim SY, Kim JA. Nursing students' image of nurse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Nursing Administration*. 2004;10(2):219-231.
 16. Song IJ. A comparative study of the opinion on the image of nursing among the doctors, nurse, other hospital personnel and the general public.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1993;32(2):51-62.
 17. Lee DS. A study on the nurse's image perceived by general public.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1995.
 18. Yang IS. A study on the image of nurses and determinants the imag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998;4(2):289-306.
 19. Kim HJ. A study on image of the nur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of Chonbuk National University, 2000.
 20. Rosenberg M.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Vol.11).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J); 1965.
 21. Jeon BJ.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medical journal*. 1974;11:109-129.
 22. Holland, J, Gottfredson D, Power P. Some diagnostic scales for research in indecision making and personality: Identity, information, and barri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80;39(6):1191-1200.
 23. Kim BH.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7.
 24. Kwon YH. Effect of ready planned self-esteem program through MBTI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2002.
 25. Jung JS, Jeong MJ, Yoo IY. Relations between satisfaction in majo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4;20(1):27-36.
 26. Lee JW, Lee NY, Eo YS. Path analysis of major satisfaction, clinical competenc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level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8;19(1):311-320.